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

장수군, 물가·민생·안전 등 전 분야 점검

장수군은 14일부터 18일까지 연휴 5일간 설 명절 물가, 민생, 안전 등 군민이 안전하고 풍성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함께 살피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설 명절'을 만들기 위해 장수경찰서, 장수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종합상황실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종합상황 △재난관리 △물가안정 △생활민원 △도로교통 △의료·가족방역 등 6개 분야 12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해 사전 점검부터 연휴 기간 비상대응까지 빈틈없이 운영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군은 연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포함한 6개 대책반과 읍면 생활민원 상황반을 편성해 공무원 150

명을 비상근무에 투입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군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장수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기존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약국 9곳에 대한 운영 현황을 군청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게시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지난 달 2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지정하고 물가안정 종합상황실 가동으로 설 명절 성수품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이와함께 재난관리대책반은 각종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재난·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에 집중해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에 힘을 쏟고 있다.

생활민원대책반은 연휴기간 중 생

활·음식물 폐기물 적체 및 수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거일을 읍면별로 사전에 홍보하고 가스,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으로 군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교통대책반은 귀성객의 고향 방문과 활동에 대비한 한파·강설 대비 결빙 취약 구간 사전 점검 및 예방 조치에 나선다.

이외에도 의료·가족방역대책반은 연휴 기간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최훈식 군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우리 군민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 방문객, 군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종합상황실 중심 주민 불편 최소화

무주군은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12일 군에 따르면, 연휴 5일간 7개 분야 140명의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서며 △주민과 방문객 불편 최소화 △민생생계 및 서민 생활 안정 △각종 안전사고 예방 △비상 진료체계 구축 △건강한 가부장화 조성 등 다양한 상황에 즉각 대응한다.

특히 보건의료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상황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읍면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해 안전 확보에도 나선다.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을 위해 13일 까지 무주군 전역에서 '우리 동네 새 단장'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며, 연휴 기간에는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집중한다. 상수도 시설 점검과 동파·결빙 대비 민원 처리 등 비상 상황반도 운영된다.

또한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마을담당관제를 운영해 공무원 400여 명이 소외계층을 위한 격려하고, 가

스·전기·난방 등 생활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 가정 아동 330명에게는 무주농협친환경유류사업단을 통해 떡국용 소고기, 삼겹살, 사과, 갈비탕 등 부식이 제공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따뜻한 공동체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며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마이산 최장 돌담 거리 조성"... 세계적 관광지 도약 선언

동창옥 진안군수 출마지, "생활인구 1천만 시대 열겠다" 비전 제시

지난 1월 15일 진안군수 출마를 선언한 동창옥 진안군의회의장이 진안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마이산 최장 돌담 거리 조성' 구상을 발표하며 생활인구 1천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동창옥 출마지는 마이산 남부 돌담을 세계적 관광 콘텐츠로 도약시키

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세계적 인 여행지 '비슬람 가이드'로부터 별셋 만점을 받은 대한민국 대표 명소 마이산의 브랜드를 기반 삼아 기(氣)가 살아 숨 쉬는 돌담으로 남부와 북부를 잇는 상징적 관광 축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중국의 만리장성이 세계적인 관광 코스 1번지로 자리매김했듯이, 독보적인 용암 지형을 간직한 마이산의 돌담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문 관광 코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산을

단순한 관광지 아닌 힐링과 명상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내외 관광객이 반드시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창옥 출마지는 "마이산 관광 활성화 통해 상가와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진안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번 구상은 마이산의 자연·문화적 가치를 세계적 브랜드로 승화시켜 진안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하천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섬진강(지방하천) 준설을 실시, 취수 가능 수량을 확대함으로써 남부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설 명절 상수도 안정 공급 만전

진안군, 겨울 가뭄 속 생활용수 위기 선제 대응으로 극복

진안군은 겨울철 가뭄과 한파가 겹치며 남부지역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다.

군에 따르면 최근 강수량 부족과 지속적인 한파로 월운취수원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백운·상수·마령·부귀면 일부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즉각 수위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 체계를 가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하천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섬진강(지방하천) 준설을 실시, 취수 가능 수량을 확대함으로써 남부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섬진강 준설을 통한 수위 확보 △취수시설 집중 점검 △취수장 수위 상시 모니터링 강화 △광역상수도 일부 수계 전환 등 다각적인 대책을 병행 추진하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동절기 한파로 인한 동파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대응반도 운영 중이다. 군은 △외단집·고지대 등 취약지역 집중 관리 및 해빙 작업 △동파 발생 시 긴급 복구 및 임시 급수 지원 △동파 예방 요령 홍보 등을 추진하며 주민 불편 최소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농지은행사업 현장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래)는 11일 장수군 전통시장을 방문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은행 은퇴직불사업'과 '농업인 농지임대 수탁사업' 수수료 전면 폐지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했다.

농지은행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익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수령하는 제도이다.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전면 폐지' 내용은 그동안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인 경우 임대수탁은 2.5%, 사용대수탁은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이러한 부담이 전면 해소되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산림조합, 상·하반기 산림조합 금융 업적평가 '금상'

장수군산림조합이 2025년도 산림조합 상호금융 업적평가에서 상·하반기 모두 '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139개 산림조합 가운데 상·하반기 연속 금상 수상은 장수군 산림조합이 유일해 지역 금융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9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산림조합금융 업적평가 시상식'을 열고 우수 조합을 시상했다.

장수군산림조합은 금융 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 건전한 여신 관



리 등 전 분야에서 고른 평가를 받으며 금상을 수상했다. 특히 상·하반기 연속 수상은 조합의 지속 가능한 금융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평가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엽거수거·예방캠페인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길선)는 겨울철 밀렵 방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예방을 위해 최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엽거수거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무주군 서창마을 인근에서 전북지방환경청, 무주군청 등 5개 기관 50명이 참여해 국립공원 경계지역과 야생동물 주요 이동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설치된 울투 7점을 수거했다.

아울러 탐방객을 대상으로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행동 요령과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 엽거 설치하는 절대 금물"이라며 "멧돼지 폐사체나 엽거 발견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덕유산국립공원은 최근 3년간 울투와 멧 등 불법 엽거 42점을 수거했으며, 불법 엽거 발견 즉시 신고할 경우 밀렵·밀거래 포상제도에 따라 포상 대상이 된다.

/무주=손홍기 기자

진안군,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안전 점검 나서

진안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일 진안고원시장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유동 인구가 급증하고 재사용품 준비 등으로 화재 사용이 늘어나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경영 부군수를 비롯해 군청 안전재난과,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투입됐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명절 전까지 신속히 개선을 완료하게 했다.

이경영 부군수는 "상인들과 방문객이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